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전 주 브라질 대사

한상(韓商), 글로벌 코리아의 기수

고 있는 우리 한인경제인들의 모험가 정신을 본다면 한국을 운둔의 나라가 아닌 어떤 나라로 소개할런지 궁금하다.

한상(韓商)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5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이민사에서 한상은 1960년대 미주지역으로 이민이 본격화되면서 출현하였고, 8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다. 한상은 아직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면에서나 영향력에 있어 세계의 대표적인 민족 네트워크인 중국의 화상(華商)이나 유대인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화상은 동남아와 미국에, 유대인 상도 미국, 유럽, 남미 일부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역사도 길다. 그들에 비하여 짧은 기간 중 한상이 보여준 성장세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이다. 이미 국내에도 잘 알려진 미국 일본에서 성공한 한상들은 물론이지만 아프리카 오지를 비롯하여 극도로 치안이 나쁜 중미지역, 문화적인 어려움과 제약이 그 어느 곳보다 심한 중동 지역에서 도 맹활약을 하고 있다.

또, 보통사람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을 서태평양이나 카리브해의 조그만 섬나라에 이르기 까지 세계 도처에서 수 없이 많은 한상들이 우리 민족 특유의 역척스러움과 근

면 성실함으로 현지에서 뿌리내리고 경제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앞으로 한상이 성장할 잠재력은 무한하다. 개개인의 역량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현재 세계 175개 국에 퍼져있는 700여만의 재외동포를 연결하는 세계적 차원의 한인족 네트워크가 구축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내경제와 연계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런 한상들의 가장 큰 비즈니스 교류의 장인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 네트워크!’ 슬로건 아래 오는 29일부터 서울 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해외 한상 1000여명, 국내 기업인 2000여명이 참석하게 되는 이번 대회는 식품외식, 첨단 IT, 섬유 패션 등의 분야에서 기업 전시회,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국내 중소기업들과 멘토링 세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온 한상들과 국내 경제인들이 전문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상상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의 확장을 도모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그동안 대화를 거치면서 세계 한상네트워크의 추축이 되어온 1세대 한상과 꾸준히 대대에 참여해왔던 한상은 물론 잘 알려진

지 않은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신진 한상들이 참여함으로써 계속 확대 발전하고 있는 한상 네트워크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45세 미만의 한상들의 교류모임인 영 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YBLN)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젊어진 한상대회가 될 것이다. 이들이 국내 청년 기업인들과 함께 하는 모임은 모국과 재외동포사회가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한인족네트워크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국가 간의 경계는 흐려지고, 민족 간 유대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가보다는 지방자치정부, 기업, 개인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모든 나라가 해외에 있는 자신들의 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한인족 동포사회는 한국의 미래에 큰 축복이라고 했다. 한상들이야말로 국가경제영토 확장의 상징이요, 글로벌 코리아의 기수이다. 제12차 한상대회의 성공을 기원한다.

얼마 전 이민 관련 학술모임에 참석차 서울에 온 한 그리스 학자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화시대에 세계를 아우르는 민족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한인족 동포사회는 한국의 미래에 큰 축복이라고 했다. 한상들이야말로 국가경제영토 확장의 상징이요, 글로벌 코리아의 기수이다. 제12차 한상대회의 성공을 기원한다.

의료칼럼

임신의 적 자궁내막증



이홍복
시열병원 원장

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여성의 경우 난소 물혹 때문에 정상 난소 조직이 파괴돼 초콜릿 양상의 난소 축으로 인해 정상적인 난소 크기의 1/3정도 난소조직만 남기게 되었다. 담당의사는 파괴된 난소조직을 염려하면서 이 여성에게 결혼과 임신계획을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는 상담을 했다. 또 초음파 하복부통증과 요통이 있었을 때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았더라면 난소가 이처럼 많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자궁내막은 매달 증식되고 탈락되는 과정을 겪는데, 이때 임신이 되지 못하고 탈락되는 과정이 월경이다. 이러한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이외의 곳에 존재할 때를 ‘자궁내막증’이라고 한다.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의 7~1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골반통 및 불임(난임)증과 관련이 많다. 불임 여성의 경우 30~70%에서 자궁내막증의 병변이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즉 원인불명병만 난임증

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볼만하다.

일단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생리통, 성교통, 만성 골반통, 요통 특히 하리에서부터 하지 사이로 당겨지는 듯한 지속적인 통증 등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자궁내막증을 의심해야 한다. 그러나 자궁내막증이 아주 심하고 매우 많이 진행돼 있는 상태라 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자궁내막증은 복통, 오심 및 구토, 식후 조기 팽만감, 배변습관의 변화 같은 심각한 위장장애의 증상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자궁내막증은 삶의 질적인 면과 질환이 미치는 영향, 치료의 효과 등 임상적인 문제를 고려해 각 개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한다. 궁극적인 치료 목표는 이 질환과 관련된 있는 후유증 즉 통증 또는 가임력 저하(난임)를 치료하는 것이다.

자궁내막증이 의심되는 환자의 통증 치료를 원한다면, 호르몬적인 치료를 통해 생리량을 줄여주는 것이 적절하다. 자궁내막증

통증의 일반적 치료는 질환의 상당,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영양요법, 프로세스틴 제제, 경구용 피임약, 항프로세스틴 제제, 뇌하수체호르몬 분비 억제제(GnRH) 등 혼용요법 등이 있다.

일차적인 외과적 수술의 목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자궁내막증 조직을 완전히 제거해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회복하는 것이며, 대부분 복강경 수술로서 치료를 할 수 있다. 불임의 해결을 위한 수술 후 임신성공 여부 결정은 아마도 자궁내막증의 진행 정도와 관계가 있으며, 대부분 자궁내막증의 병기진행이 심할수록 수술을 하더라도 임신 성공은 불리할 수 있다.

수술 후 1년 안의 자궁내막증 재발률은 5~20%이다. 복강경 수술로 자궁내막증 병변을 완벽히 제거해도, 5년 안에 통증이 재발하는데 5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한다. 자궁내막증은 재발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임신시도(인공수정시술 혹은 시험관아기시술)를 하는 것이 임신성공의 지름길이다.

社說

광주지역 음주운전 연간 1만명에 달한다니

광주지역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심각하다. 음주운전은 사고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오는 못된 음주운전이 증가일로라니 위험천만이 아닐 수 없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적발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면허정지)의 음주운전자 수는 무려 8398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 평균 28.6명, 한 달 858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으며, 연말까지 1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음주운전이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음주운전은 인명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 범죄다. 광주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54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031명이 부상을 당했다.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653건이 발생, 23명이 숨지고 1149명이 부상을 입는 등 폐

해가 속출했다.

더욱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낮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다가 인명사고를 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7월4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에서 한 30대 여성이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충돌해 근로자 3명을 사망케 하는 대형사고까지 발생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핸들을 절대 잡지않겠다는 마음을 다져야하고,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이튿날 차를 찾아가는 등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경찰과 행정기관 역시 한층더 엄정한 단속과 처벌, 캠페인 등을 통해 잘못된 자동차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결국 ‘도’로 위기의 살인행위’라는 음주운전 예방에서도 같은 기간 653건이 발생, 23명이 숨지고 1149명이 부상을 입는 등 폐

‘실력 광주’ 위상 추락, 시교육청 책임 크다

광주지역 수험생들의 수능성적이 하향 평준화돼 ‘실력 광주’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게다가 공·사립고간 성적 격차도 벌어져 공립고는 학력이 낮고, 사립고는 높은 ‘공저사고’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의원이 22일 밝힌 ‘2013학년도 수능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체 수험생의 평균 표준점수는 언어 103.3점, 수리가 103.2점, 수리나 103.1점, 외국어 102.7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3.7~4.1점 높았지만 전년도와 비교할 때 모든 영역에서 표준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급인 1·2등급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최하위권인 8·9등급 비율이 증가했고, 광주학생 절반 이상이 중하위권에 머물렀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수능 1등급 비율이 7년 연속 전국 최상위라는 금자탑을 쌓아왔으나 지난 2년 이후 학력이 급격히 떨어져 ‘실력 광주’가 무뎠을 지경이다. 또한 수능성적이 우

수한 상위 20개 학교에서 일반 공립고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확실히 내몰고 있는 것은 학업 성취도 하락에 따른 불안에 있다. 사교육 의존의 심화는 무엇보다 공교육, 즉 학교교육이 성적 향상을 감당하지 못한 데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학생들의 성적 저하는 교육의 안정과 균형보다는 급격한 정책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장휘국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실력보다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온 게 사실이다. 실력이 교육의 전부는 아닌 것만 분명 무리가 있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장 교육감은 현재 광주교육이 처한 상황을 직시해 안정과 균형을 통한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정책의 주안점을 뒀야 한다. 오랜 기간 지역 차별 속에도 광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킨 게 바로 실력이 아니었는가.

기고

이젠 靑전당 ‘출구 전략’을 고민할 때다



류재한
아시아 문화회회장·전남대 불문과 교수

당과 특수법인 형태로서의 전당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전자의 경우, 전당의 운영조직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고 정부의 정책의지가 직접 반영된다는 점은 장점으로 기능하나 자율성과 창의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은 단점일 수밖에 없다. 후자의 경우 전당은 지역 인재들의 고용창출효과와 더불어 자율성과 창의성 확보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재정의 안정성 미흡으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 확보도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주는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마냥 평행선만을 달릴 수 없기 때문이다. 국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면서도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점에서 법인화 관련 광주의 가능한 대응 전략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당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가가 운영하고 그 이후 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운영이 안정되는 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현행 법령 27조 3항에 따르면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행조문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현 시행령은 ‘조성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뿐임)의 개정을 통해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전당 기관 이후 운영이 안정되는 시기까지 국가기관으로 운영하며, 이후 문화원 또는 관련 전문 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운영이 안정되는 시기는 조성위원회에서 정한다”라는 방식을 말한다.

둘째, 국가가 전당의 일정 부분을 관할하고, 그 외의 사업은 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국가가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정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연구·아카이빙을 담당하는 아시아문화정보원과 교류를 담당하는 민주평화교류원, 창의산업육성의 핵심기인지 문화창조원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은 법인에 위탁하고 아시아문화정보원과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창조원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은 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수익성이 높은 아시아예술극장과 어린이문화원과는 달리, 아시아문화정보원과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창조원은 중·장기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며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정안 제27조 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과 이를 위한 아시아문화에 관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개발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의한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전문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운영 및 사업의(‘전부 또는’을 삭제)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의한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전문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의 일부(즉 아시아예술극장과 어린이문화원)만을 관련전문단체나 법인에 위탁하고 아시아문화정보원과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창조원은 국가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경영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격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는 보편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전당의 운영조직의 결정에 있어서 광주와 문화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교복 등 세균 많은 섬유제품 청결 신경써야

아이들 3명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닌다. 3명 모두 다 교복을 입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청결하게 해주려고 하지만 교복을 자주 빨아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가끔씩 자주 세탁을 해준다. 그 이유는 이 교복이 각종 세균에 취약해 자주 빨아야 심하게 된 세균덩어리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교복이 더러워지면 얼마나 더럽

졌느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주부교실에서 검사해보니 화장실 변기보다 백 배 가까이 많은 세균이 살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런 교복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베개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교복은 아침 등교부터 학원을 거쳐 귀가하기까지 종일 입고 있게 마련이지만 세탁은 어쩌다 한 번이다. 먼지를 털어보면 뿌옇게 날릴 정도다. 어떤 주부의 얘기를 들

어보면 백 배 더 많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거의 녀 달을 세탁하지 않고 그냥 입는 것이다. 주부들이 아이들 교복을 자주 빨지 않는 이유는 그게 빨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일이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기거나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게 아이들끼리 입고 교실과 밖에서 부대끼다 보니 냄새도 나고 불결해 지며 슬슬 세균덩어리로 변해가게 마련이다. 섬유에 포착된 세균 수는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같은 플라스틱 재질에서 나온 세균

보다 거의 백 배 더 많다고 한다. 섬유는 그 속에서 따어나 습기 때문에 더 잘 번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 유치원 가방에선 먼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फै할증을 일으키는 균이 나오기도 하고, 베개에선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는 균도 나왔다고 한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 위생을 위해 섬유 제품은 세탁에 더욱 신경 쓰고 살 수 없는 것이라면 햇빛에 잘 말려서라도 항상 청결하게 해주면 좋겠다.

▲양창숙·광주시 남구 구소동

無 等 鼓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팀장을 지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외압과 관련한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조영근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나”면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을 했다. 또 “정체포를 하겠다면 내가 사표를 쓰거든 수사하라”며 수사를 가로막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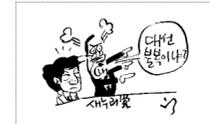
이번 수사의 절차상 정당성에 대해 그는 “체포영장 집행 전에 검사장에 보고했다. 공소장 변경도 4차례에 걸쳐 승인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고 체계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검찰법상 구두가 아닌 결재의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대선 불법으로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와 대선 불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의 움직임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맛글 때문에 대선에서 민주당이 졌다고 믿을 국민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국정원 댓글 사건과 검찰 외압을 민주당의 대선 불법 운운으로 희석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의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23일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법정권다”면서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밝혀 불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검찰 수사팀에 대한 외압을 밝히는 진상 조사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단죄하는 일이다.

이장폐천(以掌蔽天)이라고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다. 초음제의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대선 불법으로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와 대선 불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의 움직임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맛글 때문에 대선에서 민주당이 졌다고 믿을 국민이



<p>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p>	<p>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p>
<p>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